

치과병원 내원 환자의 구강건강관리용품 사용실태와 관련요인

정명옥 · 강복수* · 이경수* · 황태운*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Usage Patterns of Oral Care Products of Dental Patients

Myung-Ok Jeung, Pock-Soo Kang*, Kyeong-Soo Lee*, Tae-Yoon Hwang*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 and Public Health Studies,
Yeungnam University, Daegu, Korea*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College of Medicine, Yeungnam University, Daegu, Korea*

—Abstract—

Purpose or Background :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dentify the usage patterns of oral care products of the patients visiting a National University dental clinic.

Materials and Methods : A questionnaire survey was administered to 298 patients visiting the K dental department based in Daegu during the period from December 10, 2005 through January 30, 2006.

Results : Of total respondents, 42.3% used moderate toothbrush or soft toothbrush, 53.7% replaced their toothbrush every two or three months.

Patients with periodontal diseases were aware of 2.1 devices and currently used 1 device out of 10 auxiliary oral hygiene devices recommended by dentist. Spacing patients were aware of 1.8 devices and currently use 1 device out of 3 auxiliary oral hygiene devices recommended by dentist. Patients wearing a fixed dental prosthesis were aware of 2.6 devices and currently used 1.6 devices out of 8 auxiliary oral hygiene devices. Those who received dental implant procedure were aware of 2.9 devices and currently used 1.5 devices out of 6 auxiliary oral hygiene devices. Those with orthodontic problems were aware of 2.7 devices and currently

used 1.8 devices out of 6 devices, showing a higher level of awareness on oral hygiene devices. Those wearing dentures recognized 0.6 device and currently used 0.3 device out of 3, showing a lower level of awareness and usage.

Of total respondents, 70.2% cited “no knowledge of oral care products” as the reason for not using any oral care product, which was followed by “no one recommended that for me” (15.8%) and “cannot be sure about efficacy” (11.4%). These findings underscore the need for recommending the use of oral care products when a patient sees the dentist.

Conclusion : Given a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oral health education and the use of auxiliary oral care products, it is important to promote oral health education among dental patients.

Key Words : Oral care products, Dental patients.

서 론

주요구강질환은 치아우식증과 치주병으로써 발생빈도가 높고 치아손실의 대표적 원인이 되는 구강질환이며, 치아우식증과 치주병의 예방을 위해서는 치면세균막의 관리가 중요하다. 구강위생관리의 목적은 구강질환의 발생 원인이 되는 치면세균막을 효율적으로 제거하는데 있다. 구강 내 치면세균막을 조절하는 데는 잇솔질이 가장 효율적이거나, 잇솔질만으로는 완벽한 관리를 할 수 없고, 환자에 따라서는 질환의 종류에 따른 개인의 적합한 보조 구강위생용품들을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치면세균막 관리는 물론 치간 청결이나 치은 맛사지 등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¹⁾

보조구강위생용품은 치면과 치은의 치면세균막을 제거하고 치은의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치은상태나 치은열구 내 상피세포의 각화를 촉진한다. 현재 국내에는 약 200여종의 칫솔과 40여종의 세치제 그리고 10여종의 보조구강위생용품이 시판되고 있는데, 효율적인 구강관리

를 위해서는 개인의 연령과 구강상태 등을 포함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합한 칫솔과 세치제 및 보조구강위생용품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²⁾ 질환별 구강상태란 치주질환의 여부, 음식물 잔사 및 치간 이개, 고정성 치아 보철물 장착여부, 인공치아 매식, 교정치료중이거나, 의치장착 여부, 지각과민(시린이), 구취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치주 환자에 있어서 권장 보조구강건강관리용품으로는 치간 칫솔, 물 사출기, 양치용액, 치실, 치끈(super floss), 부분 침단칫솔, 고무치간자극기, 약강도 칫솔, 전동 칫솔, 치은염완화 세치제 등이 있다. 지각과민(시린이) 환자는 부드러운 잇솔 모와 지각둔화세치제를 권장하는 것이 좋으며, 구취 환자에 있어서는 설태제 거기와 양치용액, 치실, 전동 칫솔, 치간 칫솔, 치실고리 등의 사용이 권장된다. 또한 교정치료 중인 환자에 있어서는 교정용 칫솔, 치간 칫솔, 물 사출기, 양치용액, 고무치간자극기(러버팁), 치은맛사져 등이 권장되며, 의치 환자는 의치용 칫솔, 의치세정제 용액, 양치용액 등의

사용을 추천하며, 이렇듯 구강질환의 종류와 구강상태에 따라 다양한 구강건강관리용품의 사용이 권장된다.

질환에 따른 구강건강관리용품의 사용이 효과적이고 그 필요성이 증명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환자들이 권장되는 보조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보조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개인의 구강상태에 맞는 적절한 용품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구강질환을 진단받고 치과병원을 방문한 환자들의 구강질환 및 구강상태에 따른 적절한 구강건강관리용품 사용에 대한 인식과 사용실태를 파악하고, 구강보건교육의 경험과 용품사용과의 관련성, 환자별 구강건강에 대한 신념과 용품 사용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환자들의 구강관리에 대한 요구도를 분석함으로써 구강질환별 적합한 구강건강관리용품의 사용방안을 제시하여 구강질환에 이환된 환자들의 구강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대구광역시 소재 K 치과병원에 내원한 환자 중 치주질환, 음식물 잔사/치간 이개, 교정치료, 고정성 치아보철, 인공치아 매식, 충 의치 또는 국소의치여부, 구취여부, 지각과민(시린니) 등의 주된 치아질환으로 진단을 받고 재방문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기간은 2005년 12월 10일부터 2006년 1월 30일까지였으며, 구강질환과 구강상태에 대한 정보는 K 치과병원 치주과, 치과보철과, 구강내과, 치과보존과, 교정과와의 협조를 얻어 치과의사가 검진하여 기록한 진료기록부 검토를 통하여 구강질환과 구강상태를 파악하였고, 구

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구강건강관리용품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 당시 초진 환자는 구강질환 이환 이후의 구강건강용품 사용에 대한 조사가 어려워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설문조사가 완료된 300명중 부적절한 응답을 한 2명을 제외한 298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에 포함된 내용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질환별 특성, 구강위생용품의 사용시기와 횟수, 칫솔과 세치제의 특성, 구강보건교육의 경험유무, 18종의 보조구강위생용품에 대한인지도, 용도 이해여부, 현재사용여부, 사용기간, 빈도, 현재 사용 중인 용품의 사용계기와 용품을 권장한 사람, 용품의 미사용 이유 등 이었으며, 구강보건교육 경험유무와 용품 사용여부와의 관련성, 구강건강에 대한 신념과 용품사용과의 관련성, 구강 건강에 대한 지식습득 경로와 향후 구강보건교육 요구경로 등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Versio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의 질환별 구강건강관리용품에 대한인지도, 사용법 숙지, 현재 사용여부 등은 빈도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구강보건교육 경험유무와 보조구강위생용품 사용여부와의 관련성, 구강건강에 대한 신념과 보조구강위생용품 사용여부와의 관련성 검정은 교차분석을 하였다.

결 과

조사대상 환자 298명중 남자가 40.6%, 여자가 59.4%였으며, 연령은 20~29세가 24.8%, 40~49세 19.1%, 50~59세 17.8% 순이었고, 학력은 대졸 이상이 39.6%, 고졸이 36.2%였으며,

Table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일반적 특성	대상자 수	%
성 별		
남	121	40.6
여	177	59.4
연 령(세)		
10 - 19	29	9.7
20 - 29	74	24.8
30 - 39	47	15.8
40 - 49	57	19.1
50 - 59	53	17.8
60 ≤	38	12.8
학 력		
중졸 이하	72	24.2
고졸	108	36.2
대졸 이상	118	39.6
소 득(만원)		
< 100	36	12.1
100 - 199	62	20.8
200 - 299	81	27.2
300 - 399	47	15.8
400 ≤	72	24.2
계	298	100.0

월평균 가구소득은 200~299만원이 27.2%, 400만원 이상이 24.2%, 100~199만원이 20.8%였다(Table 1).

사용하는 잇솔모의 종류는 ‘부드러운 모’와 ‘보통 모’가 각각 42.3%였다. 잇솔의 교환 시기는 2~3개월이 53.7%로 가장 많았다. 치과에서 구강질환을 진단 받은 후 잇솔질 횟수의 변화로는 ‘중전과 비슷하거나 같다’가 56.7%, ‘증가되었다’가 39.6%, ‘감소했다’ 3.7%로 나타났으며, 진단 받은 후 잇솔질의 방법은 ‘변화하였다’가 44.6%, ‘변화하지 않았다’가 55.4%였다. 불소함유 세치제를 ‘사용한다’가 35.2%, ‘안한다’가 14.5%, ‘모른다’가 50.3%였고, 특수 세치

Table 2. 잇솔과 세치제 사용실태

사용실태	대상자 수	%
잇솔질의 종류		
부드러운 모	126	42.3
보통 모	126	42.3
딱딱한 모	35	11.7
모름	11	3.7
잇솔 교환시기 (개월)		
≤ 1	31	10.4
2 - 3	160	53.7
6 - 12	71	23.8
13 ≤	36	12.1
잇솔질 횟수의 변화 ^㉑		
증가했다	118	39.6
중전과 같다	169	56.7
감소했다	11	3.7
잇솔질 방법의 변화 ^㉒		
예	133	44.6
아니오	165	55.4
불소함유 세치제 사용		
예	105	35.2
아니오	43	14.5
모름	150	50.3
특수세치제 사용 ^㉓		
한다	92	30.8
안한다	176	59.1
모름	30	10.1
계	298	100.0

㉑ 치과에서 질환을 진단 받은 후의 잇솔질 횟수의 변화

㉒ 치과에서 질환을 진단 받은 후의 잇솔질 방법의 변화

㉓ 질환이나 증상완화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세치제

제는 ‘사용한다’가 30.8%, ‘안한다’가 59.1%였다(Table 2).

조사대상자의 구강질환은 치주 환자가 24.2%로 가장 많았고, 교정 환자가 18.5%, 고정성 치아보철 환자가 15.8%, 구취 환자가 11.1%, 지각과민(시린이) 환자는 10.1%, 치간 이개로 음식물 잔사의 저류를 호소하는 환자가 8.7%

Table 3. 조사대상자의 질환별 분포

질환명	대상자 수	%
치주질환	72	24.2
교정치료	55	18.5
고정성 치아보철	47	15.8
구취	33	11.1
지각과민(시린이)	30	10.1
음식물 잔사/치간이개	26	8.7
인공치아 매식	20	6.7
의치(총, 국소)	15	5.0
계	298	100.0

였으며, 인공치아 매식 환자가 6.7%, 의치(총, 국소)환자 5.0%였다(Table 3).

구강질환상태별 권장 보조구강위생용품의 종류에 따른 보조구강위생용품의 인지 용품 수, 사용법 숙지 용품 수, 현재사용 용품 수를 조사 분석한 결과 치주 환자는 72명으로 주로 권장하는 보조구강위생용품으로 치실, 물 사출기, 약강도 칫솔, 전동 칫솔, 치간 칫솔, 고무치간 자극기(러버팁), 치은염완화제 치제, 양치용액, 치끈, 침단(부분)칫솔 등 10종의 사용가능한 용품 중 인지하고 있는 용품 수는 2.1개였고,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는 용품 수는 2.0개, 현재사용 중인 용품 수는 1.0개이었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보조구강위생용품 사용률은 치간 칫솔이 41.7%, 물 사출기가 2.8%였다. 교정 환자에 대한 권장 보조구강위생용품은 교정용 칫솔 등 6종이며 이에 대한 인지하고 있는 용품 수는 2.7개였고,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는 용품은 수 2.6개, 현재사용 중인 용품은 1.8개이었으며,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보조구강위생용품은 교정용 칫솔로 74.5%였다. 고정성 치아보철 환자의 권장 보조구강위생용품은 치간 칫솔 등 8종인데 이중 인지하고 있는 용품 수는

2.6개,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는 용품 수는 2.4개, 현재사용 중인 용품 수는 0.6개이었으며,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보조구강위생용품은 치간 칫솔로 21.3%였다. 구취환자는 33명으로 권장 보조구강위생용품 설태 제거기 등 6종인데 인지하고 있는 용품 수는 2.3개,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는 용품 수는 2.2개, 현재사용 중인 용품 수는 1.6개이었으며,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보조구강위생용품의 사용률은 양치용액이 36.4%, 설태제거기가 33.3%였다. 지각과민(시린이) 환자는 30명으로 권장 보조구강위생용품은 부드러운 모 칫솔과 지각둔화 세치제 등 2종인데 인지하고 있는 용품 수는 0.7개,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는 용품 수는 0.7개, 현재사용 중인 용품 수는 0.5개이었으며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보조구강위생용품의 사용률은 부드러운 모 칫솔이 40.4%, 지각둔화 세치제가 10.0%였다. 음식물 잔사/치간 이개 환자는 26명으로서 권장 보조구강위생용품은 치간 칫솔 등 3종인데 인지하고 있는 용품 수는 1.8개,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는 용품 수는 1.6개, 현재사용 중인 용품 수는 0.8개이었으며,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보조구강위생용품의 사용률은 치간 칫솔이 46.2%였다. 인공치아 매식 환자는 20명으로 권장 보조구강위생용품은 치간 칫솔 등 6종인데 인지하고 있는 용품 수는 2.9개,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는 용품 수는 2.5개, 현재사용 중인 용품 수는 1.5개이었으며,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보조구강위생용품의 사용률은 치간 칫솔이 60.0%, 치실이 30.0%였다. 의치(총, 국소) 환자는 15명으로 권장 보조구강위생용품으로는 의치용 칫솔 등 3종인데 인지하고 있는 용품 수는 0.6개,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는 용품 수는 0.6개, 현재사용 중인 용품 수는 0.3개이었으며,

Table 4. 질환별 권장 보조구강위생용품 사용실태

(단위: 개)

질환명	대상자 수	권장용품	인지용품	사용법숙지	현재사용
치주질환	72	10종 ^㉑	2.1	2.0	1.0
교정치료	55	6종 ^㉒	2.7	2.6	1.8
고정성치아보철	47	8종 ^㉓	2.6	2.4	0.6
구취	33	6종 ^㉔	2.3	2.2	1.6
지각과민(시린이)	30	2종 ^㉕	0.7	0.7	0.5
음식물잔사/치간이개	26	3종 ^㉖	1.8	1.6	0.8
인공치아매식	20	6종 ^㉗	2.9	2.5	1.5
의치(총,국소)	15	3종 ^㉘	0.6	0.6	0.3

- ㉑ 치간 칫솔, 물 사출기, 양치용액, 치실, 치끈(수퍼플러스), 침단(부분)칫솔, 고무치간자극기(러버팁), 약강도 칫솔, 전동 칫솔, 치은염완화제 치제
- ㉒ 교정용 칫솔, 치간 칫솔, 물 사출기, 양치용액, 고무치간자극기(러버팁), 치은맛사져
- ㉓ 치간 칫솔, 물 사출기, 양치용액, 치실, 치끈(수퍼플러스), 침단(부분)칫솔
- ㉔ 설태제거기, 양치용액, 치실, 전동 칫솔, 치간 칫솔, 치실 고리
- ㉕ 부드러운 모 칫솔, 지각둔하 세치제
- ㉖ 치간 칫솔, 치실, 물 사출기
- ㉗ 치간 칫솔, 물 사출기, 양치용액, 치실, 치끈(수퍼플러스), 침단(부분)칫솔
- ㉘ 의치용 칫솔, 의치세정제용액, 양치용액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보조구강위생용품의 사용률은 의치용 칫솔이 13.3%, 의치세정제 용액이 6.7%였다(Table 4, 5).

보조구강위생용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48명을 대상으로 용품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한 결과 ‘용품에 대해 알지 못하여’가 70.2%로 가장 높았고, ‘주위에서 권하는 사람이 없어서’가 15.8%,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가 11.4%였다.(Table 6).

구강건강관리용품에 관한 교육경험과 용품 사용과의 관련성 분석에서 교육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용품 사용률은 94.4%였으며, 교육경험이 없는 응답자의 용품 사용률은 79.3%로 교육경험과 용품사용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p<0.01$)(Table 7).

조사대상자의 주관적 치아건강에 대한 인식에 따른 용품 사용을 보면 치아가 ‘건강하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93.8%가 용품을 사용하였고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대상자의 사용률은 87.6%, ‘건강하지 못하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사용률은 83.9%로 치아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정도와 용품 사용과는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p<0.05$). 또한 치아질환을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용품 사용률은 87.4%,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대상자의 사용률은 77.5%,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사용률은 52.6%로 치아질환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정도와 용품 사용과는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p<0.01$).(Table 8).

고 찰

구강건강관리용품을 사용하는 목적은 구강을 청결하게 관리하기 위해서이며, 특히 구강질환이 있는 환자들에게는 구강위생을 관리하

Table 5. 질환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권장 보조구강위생용품 사용실태 (단위: 명(%))

질환명	인지용품	사용법숙지	현재사용
치주질환 (n=72)			
치간 칫솔	43(59.7)	42(58.3)	30(41.7)
물 사출기	5(6.9)	4(5.6)	2(2.8)
교정치료 (n=55)			
교정용 칫솔	47(85.5)	47(84.5)	41(74.5)
고무치간자극기(러버팁)	5(9.1)	5(9.1)	0(0.0)
고정성 치아보철 (n=47)			
치간 칫솔	30(63.8)	27(57.4)	10(21.3)
치끈(수퍼플러스)	2(4.3)	2(4.3)	0(0.0)
구취 (n=33)			
양치용액	19(57.6)	19(57.6)	12(36.4)
설태제거기	15(45.7)	15(45.7)	11(33.3)
지각과민(시린이) (n=30)			
부드러운 모 칫솔	17(56.7)	17(56.7)	12(40.0)
지각둔화 세치제	5(16.7)	5(16.7)	3(10.0)
음식물 잔사/치간이개 (n=26)			
치간 칫솔	19(73.1)	18(69.2)	12(46.2)
물 사출기	7(26.9)	6(23.1)	0(0.0)
인공치아 매식 (n=20)			
치간 칫솔	18(90.0)	17(85.0)	12(60.0)
치실	15(75.0)	15(75.0)	6(30.0)
의치(총,국소) (n=15)			
의치용 칫솔	3(20.0)	4(26.7)	2(13.3)
의치세정제 용액	3(20.0)	3(20.0)	1(6.7)

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주요 구강건강관리용품은 잇솔 및 세치제, 보조 구강건강관리용품 등이 있다.³⁾ 구강질환을 가진 환자는 스스로가 질환이나

Table 6. 보조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미사용 이유	대상자 수	%
용품에 대해 알지 못하여	33	70.2
주위에서 권하는 사람이 없어서	8	15.8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6	11.4
기타	1	2.6
계	48	100.0

보조구강위생용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대상자 응답.

Table 7. 구강건강관리용품에 관한 교육경험과 용품사용 여부와의 관련성

(단위: 명(%))

교육경험	대상자수	사용 유무		p-value
		예	아니오	
예	90 (30.2)	85 (94.4)	5 (5.6)	0.000*
아니오	208 (69.8)	165 (79.3)	43 (20.7)	
계	298 (100.0)	250 (83.9)	48 (16.1)	

Table 8.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인식과 용품사용 여부와의 관련성

치아건강상태에 대한 생각	대상자수	사용 유무		p-value
		예	아니오	
치아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건강하다	32 (10.8)	30 (93.8)	2 (6.2)	0.048*
보통이다	113 (37.9)	99 (87.6)	14 (12.4)	
건강하지 못하다	153 (51.3)	121 (83.9)	32 (20.9)	
치아질환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심각하게 생각한다	239 (80.2)	209 (87.4)	30 (12.6)	0.000**
보통이다	40 (13.4)	31 (77.5)	9 (22.5)	
심각하지 않다	19 (6.4)	10 (52.6)	9 (47.4)	
치아질환에 이환될 가능성				
높다	278 (93.3)	243 (84.2)	44 (15.8)	0.505
보통이다	14 (4.7)	12 (85.7)	2 (14.8)	
낮다	6 (2.0)	4 (66.7)	2 (33.3)	
계	298 (100.0)	250 (83.9)	48 (16.1)	

구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구강건강관리용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강건강관리용품의 사용실태를 살펴보면 조사대상자들의 현재 사용하는 잇솔 모의 종류로는 부드러운 모와 보통 모의 사용률이 각각 42.3%로 높게 나타나 일반적으로 강모의 탄력이 중등도인 잇솔 모를 권장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 시판되고 있는 제품들이 거의 중강도 강모에서 약강도 강모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서 올바른 잇솔 모의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⁴⁾ 잇솔의 평균사용기간은 일반적으로 잇솔 평균수명이 2~3개월인 것으로 볼 때, 2~3개월이 53.7%로 낮게 나타나 올바른 잇솔 모 교

환시기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치과에서 구강질환을 진단 받은 후 잇솔질의 방법의 변화가 ‘변화하였다’는 비율이 44.6%로 낮게 나타나 올바른 구강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구강관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구강질환이나 증상 완화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특수 세치제의 사용도 ‘하지 않는다’가 59.1%로 높게 나타나 지각과민이나 치주 환자에 있어서 적극적인 권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치주 환자의 권장 보조구강위생용품으로는 10종으로 권장용품 수 중 평균 용품 인지 수는 2.1개, 사용법숙지 용품 수 2.0개, 현재사용 용

품 수 1.0개이었으며, 치간 칫솔의 인지율은 59.7%, 사용법숙지율은 58.3%, 현재사용 4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물 사출기의 인지도는 6.9%, 사용법숙지율은 5.6%, 현재사용률은 2.8%이었으며 10종의 권장용품 중 그 이외의 용품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여 적극적인 구강보건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교정 환자의 권장 보조구강위생용품은 6종으로 평균 인지 용품 수 2.7개, 사용법 숙지 용품 수 2.6개, 현재사용 용품 수 1.8개로 다소 높은 사용률을 보였으며, 교정용 칫솔의 사용률은 74.5%로, 서은주²⁾가 조사 보고한 교정용 칫솔 사용률 50.5% 보다는 높게 나타나 치과병원에서 교정 환자에 대한 보조구강위생용품의 권장이 더 적극적인 것으로 생각되어지나, 고무치간자극기 사용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흔히 사용하지 않는 보조구강위생용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구취 환자의 권장 보조구강위생용품은 6종으로 평균인지 용품 수 2.3개, 사용법숙지 용품 수 2.2개, 현재사용 용품 수 1.6개로 나타났으며, 권장 용품 중 양치용액과 설태제거기의 사용률은 각각 36.4%와 33.3%로 낮았으며, 치실 고리 등의 용품들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취는 사회생활 장애의 요인이 되기도 하며 여러 구강환경관리법의 구취감소 효과를 측정 검토한 결과 잇솔질 뿐만 아니라 헷솔질로써 구취가 현저하게 감소된다고 보고하여 구취가 심한 환자에게 대해서는 잇솔질을 할 때 설태제거기도 함께 사용하도록 교육하여 사용률을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⁵⁻⁹⁾

지각과민 환자의 권장 보조구강위생용품은 2종으로 평균인지 용품 수 0.7개, 사용법숙지

용품 수 0.7개, 현재사용 용품 수 0.5개로 나타났으며, 부드러운 잇솔 모 사용률은 40.0%, 지각둔화 세치제 사용률은 10.0%로 매우 낮게 나타나, 선행연구에서 지각둔화세치제 사용률 8.0%와 비슷한 경기가 나타났다.¹⁰⁾

인공치아 매식 환자는 권장 보조구강위생용품 6종 중 평균 인지 용품 수 2.9개, 사용법숙지 용품 수 2.5개, 현재사용 용품 수 1.5개로 다소 높은 사용률을 보였으며, 치간 칫솔의 사용률이 60.0%로, 선행연구원 김수경¹⁰⁾이 인공치아 매식 환자의 치간 칫솔 이용률은 12.5%라고 보고한 것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치간 칫솔 사용률이 높은 것은 많은 치료시간과 비용, 노력에 비례하여 인공치아도 치아와 마찬가지로 관리를 철저히 해야만 수명이 길고 염증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인공치아 매식 환자들의 인식과 더불어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에서 치과위생사의 구강위생용품 사용에 대한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최근 치과병원에서 적극적인 구강보건교육이 이루어진 결과¹¹⁾라고 생각된다.

충 의치 환자의 권장보조구강위생용품은 3종으로 평균 인지 용품 수 0.6개, 사용법숙지 용품 수 0.6개, 현재사용 용품 수 0.3개로 조사 대상 환자 중 사용률이 가장 낮았으며, 의치용 칫솔 사용률은 13.3%, 의치세정제 용액 사용은 6.7%로 가장 낮은 사용률을 보여 의치환자들은 다른 질환에 비해 평균적으로 연령이 높아 용품의 사용률이 저조함을 감안하더라도 적극적인 구강보건교육과 용품사용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보조구강위생품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용품에 대해 알지 못하여'가 70.2%로 가장 높았으며, '주위에서 권하는 사람이 없어서' 15.8%,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11.4%, 기타 2.6%로

조사된 것으로 보아 치과의료기관에서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 등의 구강보건전문가가 환자들을 대상으로 보조구강위생용품의 사용에 대한 적극적인 권장과 홍보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구강위생용품 사용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이 30.2%, 전혀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응답자의 비율이 69.8%로 치과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구강질환을 진단 받고도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경우가 매우 적어 치과의료기관에서의 이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이 시급한 실정이다. 구강건강관리 용품사용과 구강보건 교육경험과는 매우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따라서 구강건강관리 용품 사용에 대한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구강보건교육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조사대상자의 주관적 치아건강에 대한 인식과 용품사용과는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는데, 이는 김혜경¹²⁾의 연구에서 구강건강관리 신념, 태도가 높을수록 자기구강위생관리행위 수준도 높아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한 결과와도 일치하는 소견이다.

치아질환에 대한 심각성과 용품사용과도 매우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이 결과로 볼 때 향후 구강보건교육을 받고 싶은 곳으로는 치과에서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를 통한 교육요구가 75%로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에 의한 교육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 치과병원에서 질환을 진단 받은 후 재방문한 환자들의 구강건강관리 용품에 대한 인지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사용률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환자나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구강건강관리용품의 효과와 필요성 등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치과의료기관에서 구강보건 인력들에 의한 환자의 구강 특성에 따른 적절한 구강건강관리용품의 선택과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치과병원 환자들의 구강질환에 따른 구강건강관리용품사용 실태와 사용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구강질환을 진단받고 재방문한 환자 298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 중 부드러운 잇솔 모와 보통 모의 사용률이 모두 42.3%였고, 잇솔 교환시기는 2~3개월마다 교환하는 경우가 53.7%로 가장 높았다.

치주환자의 경우 권장보조구강위생용품 10가지 중 평균 인지 용품 수는 2.1개, 현재사용 용품 수 1.0개였고, 음식물 잔사 치간 이개 환자는 권장 보조구강위생용품 3가지 중 평균 인지 용품 수 1.8개, 현재사용 용품 수 1.6개였다. 고정성 치아보철 환자는 권장 보조구강위생용품은 8가지 중 평균 인지 용품 수 2.6개, 현재사용 용품 1.6개였고, 인공치아 매식 환자는 권장 보조구강위생용품 6가지 중 평균 인지 용품 수 2.9개, 현재사용 용품 수 1.5개이었으며, 교정 환자는 권장 보조구강위생용품 6가지 중 평균 인지 용품 2.7개, 현재사용 용품 수 1.8개로 조사대상 질환 중 권장 용품을 가장 많이 인지하고 사용하였다. 의치환자는 권장 보조구강위생용품 3가지 중 평균인지 용품 수 0.6개, 현재사용 용품 수 0.3개로 인지하고 있는 용품 수와 사용하고 있는 용품 수가 매우 적었다.

보조구강위생품을 사용하게 된 동기는 치

과의사나 치과위생사의 권유가 73.2%로 가장 높았다. 보조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용품에 대해 알지 못하여’가 70.2%로 가장 높았고, ‘주위에서 권하는 사람이 없어서’가 15.8%,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가 11.4% 순으로 나타나 향후 치과에서 용품에 대한 설명과 권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구강보건교육 경험과 용품사용과는 유의한 관련성이 있어 환자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치과병원에 내원한 환자들의 구강건강관리용품에 대한 인지도, 사용법 숙지, 사용률이 대체로 낮았으며,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응답자의 사용률이 높게 나타나, 향후 치과의료기관에서 구강보건전문가가 구강질환별 상태에 따른 적절한 구강건강관리용품의 적극적인 권장과 구강건강관리용품의 선택과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이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1. 김종배, 백대일, 문혁수, 최유진. 임상예방치학. 고문사. 서울. 2000;69-85.
2. 서은주. 한국인의 구강위생용품 사용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2001;1-36.
3. 김종배, 백대일, 문혁수. 구강건강관리용품의 범
위(종류)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보건복지부. 2002.
4. 김종배, 김철위, 백대일, 김영수. 잇솔의 규격 및 내구성에 관한 연구. 치대논문집 1985;9:1.
5. 김종배, 최유진, 문혁수, 김동기, 이홍수, 박덕영. 공중구강보건학. 고문사. 서울. 2000;13-68.
6. 양수정, 문혁수, 김종배. 잇솔질 및 헹글질의 구취 감소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1993;17(2):268-277.
7. Kaizu T, Tsunoda M, Aoki H, Kimura K. Analysis of volatile sulfur compounds in mouth air by gas chromatography. Bull Tokyo Dent Coll 1978;19:43.
8. Morris P P, Read R R. Halitosis-Variations in mouth and total breath odor intensity resulting from prophylaxis and antiseptis, J Drnt Res 1949;28:324.
9. Yaegaki, K, Suetaka, T. Periodontal disease and precursors of oral malodorous component, J Dental Health 1989;39:733.
10. 김수경. 치과병.의원 내원 환자의 구강위생용품에 대한 인지도 및 사용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치위생과학회지 2002;2(2):95-103.
11. 문미영. 치과위생사의 구강위생용품 사용지식과 구강위생용품 교육에 대한 태도 및 행위.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2004; 1-49.
12. 김혜경. 자기구강위생관리행위에 관련된 요인 분석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1;1-67.